가을에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폴링인전주

FALLing in JEONJU 2021

JEONJU intl. film festival

9.09(목) - 9.12(일)

전주영화제작소

2021 September, Vol.140

JEONJU cine complex

jeonjucinecomplex.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무료대관공모전시 **<보고 느끼고 그려요! 봄 그린 展>** 8.28토~9.18토

후원회원 시사회 **<바쿠라우>** 9.1수 19시40분

인디앤아트 인터넷 예매 안내

Film Goes On

FALLing in JEONJU 2021

폴링인전주 2021

'가을에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2021.09.09.~09.12.4일간
올해의 주요 화제작을 관람할 수 있는 <폴링인전주 2021>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총 5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28편의 영화제 작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매안내

관람료
- 유료: 일반 7,000원/ 할인 6,000원 /우대 5,000원

예매오픈 8월 31일(화) 17시경
현장 예매 전주영화제작소 4층 티켓박스
온라인 예매 인디앤아트 시네마 https://www.indieartcinema.com/

상영시간표 안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구분	09/09(목)	09/10(금)	09/11(토)	09/12(일)
1회차	9월 개봉작 상영	10:40	11:00	11:00
		폴링 인 숏필름 - 수상작 (117min)	한옥희 단편 모음 (32+59min) 작품+마스터 클래스 영상	아버지의 길 (120min)
2회차		13:00	13:00	13:30
		아웃사이드 노이즈 (61min)	크립토주 (91min)	노회찬6411 (140min)
3회차	15:40	15:00	15:00	16:20
	휴먼 보이스 (30+46min) 작품+GV영상	파편 (70min)	혼자 사는 사람들 (91min)	첫번째 아이 (93min)
4회차	17:20	17:00	17:30	19:00
	포옹 (93min)	공중보건 (76+40min) 작품+마스터 클래스 영상	폴링 인 숏필름 - 지역단편 (95min)	인플루엔자 + 기생충: 흑백판 (30+132min)
5회차	19:30	19:30	20:10	
	성적표의 김민영 (94min)	태어나길 잘했어 (99min)	워터멜론 우먼 (85min)	

FALLing in JEONJU 2021

폴링인전주 작품소개

폴링 인 JCP - 가을에 만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노회찬6411 The Man with High Hopes, 2021
감독 : 민환기 | 140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노회찬 의원 3주기, 첫 번째 다큐멘터리! 시커메진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 서민의 언어로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대변했던 사람. 함께 비를 맞으며 약자와 공감하고자 했던 사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길 희망했던 사람. 누구나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사회를 꿈꿨던 사람. 지금 더욱 그리운 이름,노회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포옹 HUG, 2021
감독 : 임흥순 | 93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맞춤한다. 축하하는 하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영화인 A에게 친구 B는 여태 몰랐느냐며,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했다. 그 순간 A는 꿈에서 깨어난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세상은 새로운 삶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간다.

아웃사이드 노이즈 Outside Noise, 2021
감독 : 테드 펜트 | 61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다니엘라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미아는 즉흥적으로 시작했던 석사 학위가 끝나가는 단계에 있다. 비엔나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인 나타샤까지. 이들은 떠돌며 이야기를 나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담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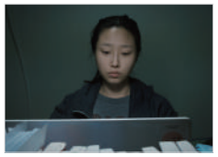
폴링 인 숏필름-지역단편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전북지역 작품

스승의 날 Teacher's Day, 2020
감독 : 이지향 | 17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은, 학부 시절부터 김 교수의 지도 제자로 온갖 시중을 들어 왔다. 스타 교수인 '김 교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좀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원하는 연구소 합격 발표를 앞둔 시점,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린다.

개정 The Crossroad within Me, 2020
감독 : 강준하 | 18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도시의 삶에 지쳐 개정이라는 지방에서 살아가는 27살 윤정호.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동창회에 나와 달라는 전화가 걸려 온다. 전화를 받고 고뇌에 빠진 정호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도시로 나가게 된다.

두번째 장례 Second funeral, 2020
감독 : 김태경 | 28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남자친구 종훈과 사별한 지 2년, 수현은 아직 잊지 못했는지 종훈의 작품을 보관하는 미술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집주인의 나가 달라는 말에도 종훈과 오랫동안 동거한 집을 섣불리 나가겠다고 말하지 못한다. 어느 날 종훈의 동생 지훈에게 종훈의 영혼 결혼식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연인 Out of Season, 2021
감독 : 허건 | 17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날. 자신에게도 치매 증상이 시작됨을 눈치챈 노인 현주는 동반 자살을 결심한다. 한적한 숲속으로 차를 타고 가 조용히 죽음을 마주하려는데, 아이가 된 남편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현주 역시 망설이게 된다.



큐브 CUBE, 2020

감독 : 조미혜 | 15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신영은 서울 고시원에서 9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신영의 몸은 정육면체가 되어 있었다. 아무 의사 표현도 못하게 된 신영은 연구소로 옮겨져 연구 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감염 원인도 치료 방법도 찾아내지 못한다.

폴링 인 숏필름-수상작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오토바이와 햄버거 Vacation Event, 2021

감독:최민영 | 40분 | 드라마 | 15세관람가

2007년 여름, 가혜는 동생 광현이 반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친구 강섭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팔아 광현의 방학식 날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나랑 아니면 Without You, 2021

감독:박재현 | 35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노년의 나이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수와 박원 부부. 코로나 전염 사태가 심각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식장마저 쉬게 된다. 오랜만에 집에서만 함께 있게 된 두 사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시장 앞에서 사진을 인화해 주는 차량을 본 적 있었다.

불모지 Wasteland, 2021

감독 : 이탁 | 35분 | 드라마 | 12세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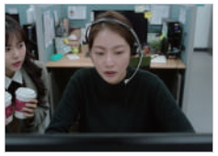
화천댁은 자살한 남편의 시신을, 서암댁의 집 텃밭에 묻어 달라 부탁한다.

파란거인 A blue giant, 2021

감독:노경무 | 7분 | 애니메이션 | 전체관람가

집에 비해 너무 큰 몸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집밖으로 나가 갖은 고초를 겪은 후집에꼭맞는몸의크기를갖게된다.

폴링 인 코리안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주요 한국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Aloners, 2021

감독 : 홍성은 | 90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카드사 콜센터 에이스인 진아. 그 누구와도 깊게 관계 맺지 않은 채 혼자 살고, 혼자 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따금씩 귀찮게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고독사 시체로 발견된다. 충격을 받은 진아는 오래 전 엄마의 집에 설치해 뒀던, 그러나 사실상 방치해 왔던 홈캠을 오랜만에 켜보게 된다.

성적표의 김민영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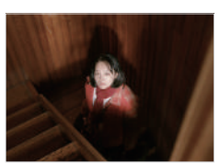
감독 : 이재은, 임지선 | 94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대학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며 지내는 스무 살 정희는 고등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민영을 오랜만에 만나 예전처럼 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민영은 그날 뜬 학점의 정정 메일을 보내느라 그런 정희가 부담스럽다.

첫번째 아이 FIRST CHILD, 2021

감독 : 허정재 | 94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정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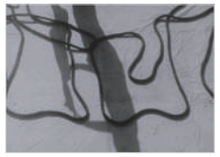
태어나길 잘했어 The slug, 2020

감독 : 최진영 | 99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춘희는 외갓집에 들어와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다한증 때문에 사람들과 손을 잡아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마늘을 까는 일로 생계를 이어 나간다. 어느 날 날벼락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춘희에게 1998년의 어린 춘희가 나타나면서 두 사람은 기묘한 동거를 이어 나간다.

폴링 인 마스터피스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 다시보기

한옥희 단편 묶음



중복 The Middle Dogs Day, 1974

감독 : 한옥희 | 7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밧줄을 모티브로 하여, 밧줄의 이미지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들을 시각적, 은유적으로 탐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시네마테크 컬렉션

구멍 The Hole, 1973

감독 : 한옥희 | 10분 | 실험 | 12세 관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열린 세계로 탈출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시도를 그린 영화.

색동 Colour Of Korea, 1976

감독 : 한옥희 | 8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이중 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갖가지 색과 문화를 담고 있다. 색채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넘어 현대사의 모습을 표현한 점이 돋보이는실험영화이다.

무제 77-A Untitled 77-A, 1977

감독 : 한옥희 | 7분 | 실험 | 12세 관람가

정치·사회적으로 암울했던 1970년대 중반, 무자비한 검열로 인해 좌절되는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갈망과 저항, 내적 불안감을 담아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시네마테크 컬렉션

인플루엔자+기생충 : 흑백판

인플루엔자 Influenza, 2004

감독 : 봉준호 | 30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영화는 한강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조혁래라는 한 남자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무심한 CCTV카메라에 잡힌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CCTV 화면들..... 그 속에서 보여지는 조혁래의 내리막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우리의 모습들. CCTV 속 실제화면(?)들은 점점 더 부조리한 영상으로 변해간다.

기생충 : 흑백판 PARASITE, 2019

감독 : 봉준호 | 131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폐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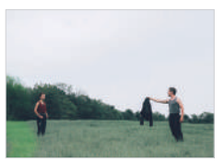
전원백수로 살 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송강호) 가족.

장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시켜 준 고액 과외 자리는 모처럼 싹튼 고정수입의 희망이다.

온 가족의 도움과 기대 속에 박사장(이선균) 집으로 향하는 기우.

글로벌 IT기업 CEO인 박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조여정)가 기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공중보건 Social Hygiene, 2021

감독 : 드니 코테 | 76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앙토냉은 항상 아내 에글랑틴의 착하고 인내심 강한 성격을 이용하려 한다. 반면 여동생 솔베그에게는 끊임없이 실망만을 안겨 준다. 또 한편으로는 카시오페에 대한 강한 끌림과 욕망을 지울 수 없다.

휴먼 보이스 Human Voice, 2020

감독 : 페드로 알모도바르 | 31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떠난 연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그의 마지막 전화를 기다리는 여자. 드디어 전화가 울린다. 조심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만을 바라며 여자는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랑이 식은 남자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고, 여자는 그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폴링 인 아트하우스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수상작, 온오프라인 1초 매진작

아버지의 길 FATHER, 2020

감독 : 스르단 고루보비치 | 120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일용노동자인 니콜라는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분신자살을 시도하자 사회복지과에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자, 니콜라는 지방 행정이 부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있는 정부까지 걸어갈 결심을 한다.
모든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권리와 정의를 위해 아버지인 니콜라는 멈추지 않는다.

크립토주 Cryptozoo, 2021

감독 : 대시 쇼 | 91분 | 애니메이션 | 청소년 관람불가

크립토주 사육사들은 꿈을 먹는 전설적인 혼종 생물인 ´바쿠´를 포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이 희귀한 야수들을 동물원에 국한해서 전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신화적 존재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워터멜론 우먼 The Watermelon Woman, 1996

감독 : 셰럴 두네이 | 85분 | 드라마 | 청소년 관람불가

젊은 흑인 레즈비언 영화감독이 1930년대에 흑인 가정부의 전형을 연기하던 배우 ´워터멜론 우먼´의 삶을 파고든다.

파편 Splinters, 2020

감독 : 나탈리아 가라샬데 | 69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1995년 11월 3일, 고향의 대표 산업인 리오테르세로 군수품 공장이 폭발했다. 수천 개의 포탄이 그 포탄을 만들어 낸 도시를 향해 발사되었다. 12살이었던 나는 폭발로부터 도망치는 도중에 고향의 참상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나는 그 테이프들을 발견했다. 군수 산업의 위협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

4F JEONJU digital indep. cinema

<관람료 안내>
일반 7,000원
후원회원 / 단체(10인 이상) 6,0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5,000원

개봉 예정작 동시대에 개봉하는 독립· 예술영화 상영

08 26 개봉

남색대문 藍色大門,2002

감독 : 이치엔 | 출연 : 계륜미, 진백림, 양우림 | 83분 | 드라마, 멜로/로맨스 | 12세 관람가

여름마다 떠오를 청춘 영화의 클래식
단짝 친구 '위에전'에게 사랑을 느끼는 '커로우'
같은 학교 남학생 '시하오'를 짝사랑하는 '위에전'
그리고 '커로우'의 비밀을 알지만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시하오'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선명해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어쩔 줄 몰랐던 열일곱

가슴 아린 짝사랑과 설레는 첫사랑 사이에서
한 여름의 성장통을 지나는 세 청춘의 이야기

09 02 개봉

최선의 삶 Snowball, 2021

감독 : 이우정 | 출연 :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 | 109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그때는 몰랐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열여덟 '강이', '아람', '소영'.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꺼이 더 나빠졌던 우리의
이상했고 무서웠고 좋아했던 그 시절의 드라마
최선의 삶

09 02 개봉

바쿠라우 Bacurau, 2019

감독 : 클레버 멘돈사 필로, 줄리아노 도르넬레스 | 출연 : 우도 키에르, 소냐 브라가, 토마스 아퀴노 | 131분 | 미스터리, 스릴러, 서부 | 청소년 관람불가

미지의 땅 '바쿠라우'.
마을 족장 카르멜리타의 장례식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총격으로 구멍 뚫린 물 수송 차량,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
마을 곳곳에서 시신까지 발견되며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이곳에 절대 발 들이지 마라!

09
16
개봉

습도 다소 높음 The rain comes soon, 2020

감독 : 고봉수 | 출연 : 이희준, 김충길, 신민재, 백승환, 차유미, 고주환 | 77분 | 코미디, 드라마 | 15세 관람가

<낭만극장 이용수칙>
체온 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필수…

"그런데 에어컨은 왜 안 틀죠?"
이것이 진짜 재난이다!

극한의 습도가 엄습해온 어느 여름날,
이희준 감독의 신작 <젊은 그대> 시사회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극장에 모여든다.
하지만 이게 웬걸,
긴축경영으로 에어컨 가동을 거부한 극장은 관객들이 뿜어내는 고온의 짜증으로 더욱더 다습해져 가고,
그저 쾌적하고 싶을 뿐인 관객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습도의 폭격에 돌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생일대의 위기가 이렇게 온다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습도 대폭발, 웃음 대폭발의 하루가 시작된다!

씨네퍼즐

문항에 비어있는 낱말을 퍼즐에서 지워나가며
숨겨진 단어를 찾아주세요.
퍼즐을 풀어 현장 티켓박스에
응모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분께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 응모가능 기간 : **9월 1일 (수) ~ 9월 7일 (화)**
- 당첨자 발표 : **9월 8일 (수) 이후 당첨자 개별 연락**

정 답:
이 름:
연락처:

1. 9월 9일(목)~9월 12일(일)까지 ○○○○○가 열린다.

2.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5월 20일 개봉작이었던 <혼자 사는 사람들>은 ○○○ 감독 작품으로 폴링인전주에서도 상영한다.

3.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6월 쇼케이스 작품이었던 <○○○의 김민영>은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작품으로 폴링인전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4. 폴링인전주 상영작이자 9월 개봉 예정작인 <○○○6411>은 민환기 감독의 다큐멘터리다.

5. 9월 2일 개봉작인 <○○○○>은 청소년 관람불가이다.

6. <최선의 삶>은 9월 2일 개봉작으로 배우로도 활동하는 ○○○감독의 작품이다.

폴	성	우	대	은
라	남	쿠	인	찬
문	노	홍	적	우
이	링	표	주	정
성	회	전	바	색

후원회원 시사회

무료상영

매월 관객설문조사 상위권 작품 가운데
1편을 선정하여 개봉 하루 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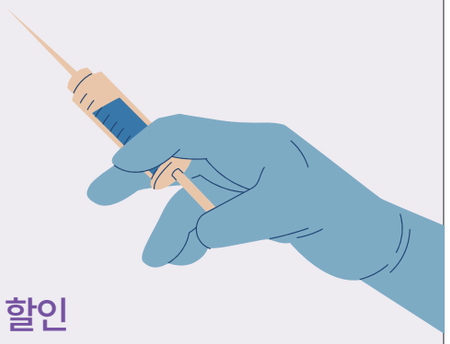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후원회원에 한하여 선착순(1인 1매)으로
티켓 증정(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바쿠라우
Bacurau, 2019
감독 : 클레버 멘돈사 필로, 줄리아노 도르넬레스 | 131분
| 출연 : 우도 키에르, 소냐 브라가, 토마스 아퀴노
| 미스터리, 스릴러, 서부 | 청소년 관람불가

일시 | **9월 1일(수) 19시 40분**

- 후원회원 본인만 입장 가능
  일반관객은 후원회원 가입 후에 입장가능
- 후원회원 가입안내
  - 매표소 현장에 비치된 가입서 작성후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회비납부
  - 가입회비 : 평생회원 50,000원 / 1년 단기회원 20,000원
    (단, 평생회원은 연간 10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백신 접종자 대상 특별 할인 안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현장 발권에 한하여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관람료 1,000원 할인
(현장 발권에 한함)

- 일반 7,000원 → 6,000원
- 회원 6,000원 → 5,000원
- 우대 5,000원 → 5,000원

※ 우대권종은 동반 1인까지 5,000원으로 관람

- 티켓박스에서 예방접종 증명서(앱, 종이) 확인 후 할인 혜택 제공

{ 개봉영화 심층칼럼 }

활동사진적 쾌감 속에 감추어진 정치성

<잘리카투>

잘리카투
Jallikattu, 2019
감독 : 리조 조세 펠리세리 I 출연 : 안토니오 바기스 I
93분 I 액션, 스릴러 I 15세 관람가

조재휘
영화평론가

<잘리카투>(2019)의 오프닝은 강렬하다. <석양의 무법자>(1966) 마냥 눈을 뜨는 사람들 얼굴의 클로즈업을 속사포 편집하던 영화는 남성 집단의 코러스를 배경음으로 깔고선 <와일드 번치>(1969)의 오프닝처럼 부단히 움직이는 곤충들의 모습을 비춘다. 날이 밝아오는 마을의 풍광을 잡는 와이드숏의 정적은 잠시. 이윽고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부산한 모습과 도축한 들소의 고기를 다듬고 거래하는 장면이 번갈아 교차편집 된다. 음향의 박자와 맞아떨어지도록 짜 맞춘 피사체의 동작과 컷의 편집은 영상에 활동사진적인 역동성과 음악적 리듬감을 동시에 부여한다.

일찍이 에이젠슈테인은 컷의 편집이 관객에게 충격을 주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영화의 연출은 몽타주 이론을 적절히 응용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마을에 난입한 소의 돌진과 그로 인해 일상의 평화가 깨진 혼란한 상황과 군중의 대비는 율동의 몽타주, 박자에 맞추어 컷을 점점 빠르게 넘기며 긴장감과 불쾌함을 고조시키는 건 운율의 몽타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낸다. <잘리카투>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도살하려던 검은 들소(자막에는 물소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인도 들소(gaur)이다.)가 외곽의 숲으로 도망했다가 마을을 습격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소를 잡으려 한다.

전형적이고 진부한 소동극 또는 추적극의 플롯이지만 이 영화에는 장르 서사의 전형적 규범성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화 본유의 활동사진적 쾌감이 자리하고 있다. 좀처럼 마스터숏에 의지하지 않고 스테디캠 카메라의 기동성을 십분 활용하는 촬영은 그 안에 담기는 군중의 집단적 움직임과 어우러지고, 때때로 저속으로 프레임을 돌리면서 영상의 운동감을 강화시킨다. 심지어 정적인 장면에서조차도 줌이나 프레임 인-아웃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넣고 있고, 과장된 톤으로 조율된 연기자들의 대사 처리와 음향의 비트로 끓어오르는 영화의 리듬이 가라앉는 걸 방지하고 있다. 망아(忘我)의 경지에 빠지기 위해 일정 리듬으로 북을 반복해 친다는 무당처럼, 이 영화는 시청각적 충격의 파상공세로 관객을 쉼 없이 흔들고 몰아세운다.

공격하는 소의 모습을 잡을 때 카메라는 거칠게 흔들리는 핸드헬드로 실제 소의 움직임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인상을 빚어낸다.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찍을 때는 종심이 깊고 수직이 강조되는 구도로 마치 공간에 빨려드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다가, 도망하는 소의 이동과 이를 추적하는 군중의 매스게임에 가까운 집단 운동을 포착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매끄럽고 유려한 수평 이동을 통해 전쟁영화를 방불케 하는 시각적 스펙터클의 장관을 펼쳐낸다. 이러한 집단 운동의 활동사진적 쾌감은 탈주한 소와 먼저 소를 붙잡은 안토니를 에워싸는 군중의 인간탑 쌓기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렇다면 <잘리카투>는 순전한 어트랙션(attraction)으로 이루어진 영화인가? 도입부의 몽타주에는 율동과 운율의 몽타주도 있지만, 이미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내길 요구하는 지성적 몽타주의 측면도 존재한다. 인간과 곤충, 다듬어지는 소고기의 교차편집은 이 영화의 주제가 벌레처럼 미약하고, 들소처럼 도축되는 하층민(소의 도축에 관계된 직업은 인도에선 하층에게 할당된다.)의 삶에 대한 것임을 암시한다. 인도에선 흰 소는 신과 같이 숭앙받지만 검은 들소는 도축이 허용되는데, 결말에서 들소와 안토니가 함께 휩쓸려 죽으면서 둘은 같은 처지로 동일시된다. 이 영화는 사회의 정상성 바깥으로 내몰린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그리는 일종의 계급정치적 은유로 읽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잠시 스쳐지나가지만 은행압류 딱지를 받는 인물의 대사에서 '낙살(Naxal) 극단주의자'가 언급되는데, 이는 인도의 모택동주의 게릴라(이 영화의 원작인 단편 소설의 제목은 「마오이스트」이다.)를 일컫는 말로 1967년 5월 서벵골주 낙살바리에서 토지개혁 정책에 의해 농지를 경작할 권리를 잃고 내몰린 소작농들이 일으킨 농민 봉기의 역사,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낙살 극단주의 게릴라에 합류했던 현실을 넌지시 들춰낸다. 즉 개혁의 부작용으로 토지에서 밀려나 숲의 게릴라에 가담한 하층민들은 검은 들소이며, 들소의 마을 습격은 낙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활동으로 치환되는 것이다.(하필이면 이 들소는 마을에서 인도 공산당 깃발을 부수는데, 이는 낙살주의자들이 선거 개혁에 안주한 인도 공산당과 결별하고 갈라져 나온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살 극단주의자의 테러는 21세기에 와서도 빈발하고 있다.

루카치의 미학 이론이 가르치듯, 한 시대, 한 사회의 예술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대의 진실을 투영하기 마련이다. <잘리카투>는 그러한 영화적 사례의 하나이다.

Zoom in
전주 쇼케이스

전주 쇼케이스 8월 상영작

<십개월> 관객과의 대화

with 남궁선 감독

십개월
Ten Months, 2020

감독 : 남궁선 I 96분 I 출연 : 최성은, 백현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 <십개월>은 개봉시 <십개월의 미래>로 제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진영(진행/영화감독) 그동안 감독님께서도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겪으시면서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장편을 이런 소재와 주제로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궁선(감독) 첫 장편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진 않았었구요. 제가 2014년에 출산을 경험하면서 젊은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며 경험에 뛰어들었음에도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았구나, 그제야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지는 걸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되겠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대중영화들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최진영 기존 매체에서 보여줬던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사실 얼마나 모성신화로 소비되었는지, 생명의 탄생에 대한 관점으로만 그려지잖아요. 이 영화는 가임기 여성인 입장에서 출산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고, 나중에 미래가 출산할때는 제 배가 막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십 개월 동안 동행을 한 기분이 정말 들었었어요. 그외에도 전세 대출의 문제나 경력 단절 위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경험이 영화에 많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남궁선 저의 감정적인 경험을 많이 넣으려고 했구요. 이야기 자체는 오히려 저로부터 조금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제가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라는 아이와 그 주변 윤호라는 남자와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설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보다도 더 준비가 안되어 있는 이들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꼭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 친구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담아보고자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 자체는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어요. 자전적인 스타일로 가지 않도록.

최진영 마지막에 할아버지의 죽음과 카오스의 탄생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한쪽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방적인 시간 안에서도 무언가 할아버지의 죽음과 탄생이 순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감독님의 어떠한 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남궁선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에 촉촉히 젖는 스타일로 연출했다가는 보기 싫은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이입이 될 때쯤에 끊어주고, 약간 다른 키워드를 던짐으로써 이 안에 담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편집적 개입을 많이 하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런 설정이 맞기는 해요. 근데 영화 원래 계획에는 조금 더 많이 등장하시긴 했었거든요. 약간 코믹한 느낌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죽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항상 주변을 이렇게 도사리 있는 느낌처럼 설정을 했었는데 최종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지가 않았어요. 마침 미래가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그 옆에 눕게 된다는 게 저는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할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나와는 분리된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거 같고요. 근데 내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키울 생각부터

시작해서 혹은 어떻게 해야될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죽는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삶의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으로 배치하긴 했죠.

최진영 최성은 배우의 연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미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장면들이 너무 리얼하게 되게 다가왔거든요.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남궁선 설정보다 어린 친구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좀 미성숙해 보였으면 했거든요. 근데 미래라는 인물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미성숙한 듯하면서도 똑똑한 거 같은데 멍청한 것 같고, 코믹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나중엔 깊은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배우가 되게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성은 배우의 경우는 아직 데뷔하기 전이었고 연극 무대 하나를 했었는데 그 연극을 보고 저희 연출부가 주 추천을 했었어요. 꼭 한 번 봐야한다고 해서 만났죠. 그리고 만났더니, 그런 애인 거죠(웃음). 예쁘고, 키도 작고 그렇거든요. 엄청 예쁜데 속에 뭔가 불타오르는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최진영 의사로 출연하신 백현진씨는 너무나 전방위적인 예술가시잖아요.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궁금합니다.

남궁선 그전부터 친분은 있었고요. 좀 특이한 사람이고 제가 예술가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 분이에요. 영화 속 의사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고민이 들었어요. 평범한 연기를 하시는 분이 와서 하기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야겠다(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백현진 선배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연기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도와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면 흔히 자기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사이코거나,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이 작품의 의사는 좀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해주셨어요.

최진영 출산 장면의 이후에 씬들은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사실은 빌드업이 사실은 된 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남궁선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처음 써졌을 때는 되게 다른 시나리오였거든요. 훨씬 더 괴상한 시나리오여서, 종말의 기운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의 기운 속으로 아이를 안고 나간다' 이런 엔딩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의 버전이 들어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너머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이가 나오고 그 모습을 마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듯한,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부정적이지도 않는 어떤 상태에서 끝내기로 계획이 됐죠.

▶14p에서 이어짐

관객 영화를 너무 잘 봐서 감독님의 단편들도 다 찾아볼 예정입니다. 영화에서 남편 되는 분을 묘사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아까 최진영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괴기스럽게 창문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 연출을 어떤 의도하고 넣으셨는지가 좀 되게 궁금해졌어요.

남궁선 장면이 무섭잖아요. 무서우라고 한 거죠(웃음). 왜냐면 윤호의 입장에서는 화가 터진 걸 텐데 약간 비이성적인 화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그 상황이 그랬던 거 같고. 아버지나 가족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심플하게 말하면 '내 여자친구가 나랑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는 배신감으로 약간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 아니냐고 헛소리도 하고. 그거는 실제로 싸우다 보면은 누구든 불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도 안에서 미래가 임신 말기에는 여성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자기가 아닌 사람의 부모의 손끝에 계속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잘 알던 남자로부터 보게 되는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일 거 같고요. 딱 그 시점에서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윤호가 다시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는 후반에 윤호가 다시 등장한 씬이 있었는데 그걸 자르게 된 거죠.

▶13p에서 이어받음

1F

전주영화제작소

자료열람실

9월 개봉영화 × 자료열람실

매월 개봉영화와 연계된 자료열람실 작품추천 코너

대만 청춘영화의 아이콘, 계륜미

말할 수 없는 비밀
주걸륜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샤오 야 췐

여친남친
양아쳬

브라질을 상상하다

브라질-여인의 음모
테리 길리엄

중앙역
월터 살레스

트래쉬
스티븐 달드리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오후 1시 ~ 7시까지

이용요금 무료

이용방법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2020년부터 물품보관함이 설치됩니다.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객동아리 씨네몽의 자료열람실 추천작

무드 인디고
L'ecume des jours, 2013

감독 : 미셸 공드리 I 출연 : 로망 뒤리스, 오드리 토투, 게드 엘마레 I
95분 I 드라마, 판타지 I 15세 관람가

관객동아리 씨네몽
김미랑

가장 맑고 흐린 사랑 영화, <무드 인디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빠져든다는 일은 행운이다. 세상 시름 모두 잊고 잠시 둘만 존재하는 그 느낌이면 충분하다.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연인, 콜랭과 클로에처럼.

콜랭은 클로에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클로에의 폐에 수련이 피어나면서, 그의 순수하기만 했던 사랑은 헌신과 무력함 사이에서 방황한다. 세상에 둘이면 충분했던 콜랭과 클로에의 세계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면서, <무드 인디고>는 시작된다.

감독, 미셸 공드리만의 황당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장면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낯설고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클로에를 위한, 콜랭의 맹목적인 투쟁을 보면 다를 것이다. 기발한 방식과 다양한 색채로 표현된 콜랭의 사랑 이야기가 주는 묘한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 특히나, 무료하고 지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 추천한다.

<무드 인디고>는 내가 본 사랑 영화 중 가장 맑고 흐린, 동시에 슬픈 영화다. 서로를 향한 연인의 만남과 이별은 현실적이지만 감독이 그린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지난날 나의 좋았던 시절을 소환하고 싶은 추억이 있는 이들을 위한 영화 <무드 인디고>다.

유현목감독의 작품으로 첫 번째 작품은 아니지만 필름의 유실로 인해 감독의 작품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 되었다. 감독의 소개를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한국영화 초창기에 리얼리즘을 이끈 거장이라고 소개가 되지만 이 영화는 리얼리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이는 철저히 낭만을 쫓아가는 영화라 말하고 싶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고 지극히 한국적인 신파극이다. 세명의 단짝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 바른 청년들이 아니였다. 소매치기나 일삼고 매일 놀고먹기에 바쁘고 머리라곤 화내고 들이받을때만 필요하다. 이성보단 본능과 분노만이 가득한 치기어린 청년들이였는데 저지르지 말아야할 큰 죄를 저질러 주인공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한명은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 신부가 되고 다른 한명은 큰 사업체를 거느린 사장님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 된다. 주인공에게 애란이란 어릴적 소꿉친구이자 말은 안했지만 동네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미래의 부인이 있었는데 감옥에 간 이후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다른 친구와 결혼하게 되어 치정극과 복수극이 곁들여져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리얼리즘을 이끄는 리더(유현목)로써의 영화가 맞나 싶었던 이유는 이러하다. 영화의 제작시기와 우리나라의 전후상황임을 감안하면 세 청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않았을거란 건 짐작할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성취욕이라는게 있어야는데 이들에게선 그걸 찾아볼수가 없다. 가질수 없다면 빼앗으면 그만인 그들이 행동에선 죄악이나 후회따윈 느껴지지않아서 그 점에서 현실적이다고 보기가 힘들었다. 또 하나는 영화속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서양문화의 산실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현재의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각박한 현실속에서 저런 낭만을 바라볼수 있게했다는 것만으로도 영화가 주는 역할은 다했기에 충분하지않나라는 생각도 한다.

분명히 이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938년작 '다럽혀진 얼굴의 천사'라는 영혈리웃영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영화에 녹여낸 것 같다. 영화의 내용도 비슷하고 등장인물, 주인공의 주변상황까지 비슷하다.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가 어디인지를 볼 필요도 있다. 그 전에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랄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화를 촬영했다고 한다. 형식이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촬영을 했다고하는데 미국의 민간원조단체인 아시아재단의 지원아래 세워진 삼성스튜디오에서 갖추어진 조건아래 제작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감독인 박남옥감독이 아이를 등에 메고 촬영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이 아닐까. 아무튼 미국의 지원, 감독이 무언가 헐리웃을 동경하는 마음이 오마쥬되어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도 한국정서에 맞게 부분부분을 신파로 매만져주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이질 수 있는 부분을 바꿔주어 감독으로써 역량을 선보인다.

재밌는 영화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힘든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가 가진 가치(유현목감독의 가장 오래된 영화), 후에 한국영화계에서 빠지지않는 1960년대 트로이카중 한명인 도금봉의 앳된 모습과 순수하면서도 애절한 연기를 볼수 있는 재미도 선사한다.

그대와 영원히
Forever With You, 1958

감독 : 유현목 I
출연 : 이룡, 이훈, 도금봉, 최남현, 이빈화, 장민호, 최봉, 김승호 I
110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관객동아리 씨네몽
소유권

1F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공모전시

곽운용 기경순 김기숙 김미정 김분임
김숙영 김연자 남궁옥 박은화 소범호
송경숙 오광천 오장근 이건호 이미경
이미정 최미경 최운정 함은아

보고 느끼고 그려요!

봄그린 展

2021. 8. 28(토) - 9. 18(토)

13:00 – 19:00 / 월요일 휴관
전주영화제작소 기획전시실

3F 전주영화제작소

영화 · 영상 후반제작실

전주영화제작소 3층에 위치한 후반제작실에는 영화·영상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색보정실, 영상편집실, 미디어변환실, 촬영장비실, 영상교육실**이 있다.

색보정실

SGO MISTIKA 시스템

색보정 작업 뿐만아니라 Finighing - VFX - Stereo3D - HFR - HDR- UHD - 8K - Conform - DCP 및 다양한 파일 포맷 입출력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하이엔드 색보정 및 마스터링 솔루션

HDR 및 일반 영상 작업을 위해 필요한 RAW 파일 및 Log 파일들의 Color Space 컨버팅 툴 제공하며 하이라이트 데이터 손실이 많은 Lut 기반이 아닌 컬러 수학 함수로 정확히 계산하는 기능으로 HDR 및 색보정 작업에 정확한 색을 구현하며, SuperWhite Controller로 HDR 영역의 하이라이트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하다.

DI 주요 작품

2020
[잔칫날] - Director 김록경
[휴가] - Director 이란희
[위안] - Director 이혜린
[아름다운 남자, 시벨롬] - Director 서수민,박홍식

2019
[우리는 서로에게] - Director 김다솜
[영화광 연속살인사건] - Director 박진성
[증발] - Director 김성민
[해협] - Director 오민욱

신규 대여장비 안내

무선송수신기 Teradek Bolt 500 XT Set

무선팔로우 TILTA Nucleus-M Partial Kit IV

티비로직 LUM-171G

핸드핼드그립 TILTA UH-T04
Universal Pro Hand Grip System

시설 및 장비대여 절차

홈페이지→장비대여→장비,대여날짜 선택→신청하기→
결제방법선택(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결제진행→장비 사용 후 반납

문의처 : **063) 282-1400** / E-Mail : **cineplex@jeonjufest.kr** / 홈페이지 : **jeonjucinecomplex.kr**

9월 개봉작 일정

※ 하단 작품 외에 추가 개봉되는 작품은 추후에 홈페이지 및 영화관 현장에서 안내될 예정
※ 상영 시간표 업데이트 주기 변경 : 화요일에 해당주 목~차주 수요일 시간표 공개

8월 26일 (목)

남색대문

9월 2일 (목)

최선의 삶

바쿠라우

9월 16일 (목)

습도 다소 높음

후원회원 시사회

바쿠라우

9월 1일(수) 19시 40분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후원회원 본인 한정)

폴링인전주 2021

'가을에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2021.09.09.~09.12 4일간
올해의 주요 화제작을 관람할 수 있는 <폴링인전주 2021>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총 5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28편의 영화제 작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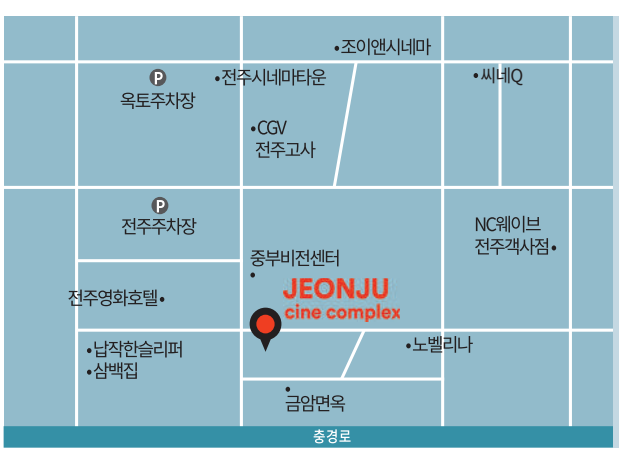
관람료
- 유료: 일반 7,000원/ 할인 6,000원 /우대 5,000원

예매오픈 8월 31일(화) 17시경
현장 예매 전주영화제작소 4층 티켓박스
온라인 예매 인디앤아트 시네마 https://www.indieartcinema.com/

관람객 매너 안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시상영
- 상영 10분전 입장
- 사진촬영 불가
- 음식물 반입 불가
- 휴대전화 전원 off
- 관람중 대화 삼가
- 엔딩크레딧 종료 후 점등
- 상영시작 후 발권 및 입장 제한



전주주차장 070.8960.9880(고사동 477-1)
영화 1편당 3시간 무료 (2편이상 관람 시 작품 수 만큼 도장 필요)
주차 추가요금 10분당 300원

옥토주차장 고사동340-1(전주시네마타운 뒤편)
영화 1편만 최대 3시간 무료
주차 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 단, 무료상영/대관행사는 주차혜택 없음
※ 옥토주차장은 혜택시간과 관계없이 밤 12시 이전까지 출차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JEONJU cine complex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http://jeonjucinecomplex.kr
※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